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8.14.(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먼저, 금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을,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예방은 모두 부분까지 공개입니다.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오전 9시 40분에는 최재형 의원 주최 북한인권정보센터 주관으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며,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 관영매체에서 군수공장 시찰한 거 관련해서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북-러 간의 회담이나 우크라 전쟁 지원 때

문에 한다는 분석도 있고, 또 남측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래식 무기인 만큼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전쟁 준... 북한은 전쟁 준비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위협적인 언동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우리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압도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김정은 총비서 뒤에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 문구 나온 거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김정은 현지 지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정부 평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열병식 예고했는데 1년에 3번 열병식 하는 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의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 8월 10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민간무력 열병식 준비를 토의하였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예고한 것도 그리고 한 해에 3번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민생을 외면하고 수시로 열병식을 개최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일삼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당국에게 열병식에 투입할 자원으로 민생을 돌볼... 먼저 돌보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 괴뢰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9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국제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열리는데 그때 북한 선수단을 지금 미리 보내야 되는데 그런 파견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계기로 국경 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의 그런 오고 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북한의 국경 개방 움직임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19일 대회 참가와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꾸준히 북한이 국제체육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국경을 개방한다는 움직임들은 있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